



3면

"개혁의 승리를 위해 앞장"

전주매일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음 4월 2일) 제27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와 기획재정부는 12일 전북도청에서 '2021년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에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 아래)와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오른쪽) 등이 티타임을 가진 모습.

내년 예산 현안사업 논의

전북도-기재부,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도, 전북형 뉴딜·지역현안 반영 적극 요청

최상대 예산실장 "심층 검토 후 반영토록 노력"

전북도와 기획재정부는 12일 전북도청에서 '2021년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전북도 국가예산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다음년도 재정 운용 방향 설명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전국 광역자치체를 직접 방문해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도를 방문,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설명과 함께, 전북도 국가예산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을 청취했다. 도는 전북형 뉴딜사업을 비롯해 농생명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새만금 수질개선 여행체험 1번지 등 18개 주요 사업 국비 1,510억원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최상대 예산실장과 티타임을 갖고, 전북도 주요 건의사항을 비롯한 당면 현안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최근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에 전북도가 소외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북도 건의사항이 내년 국가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인식 확대가 되길 바란다"면서 "집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의 합리적 접점과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훈·유병기 전북도 양 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도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관련 건의사업 논의에서는 전북형 뉴딜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며, 특히 행안부에 제출한 지역뉴딜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주요 사업으로 새만금 모빌리티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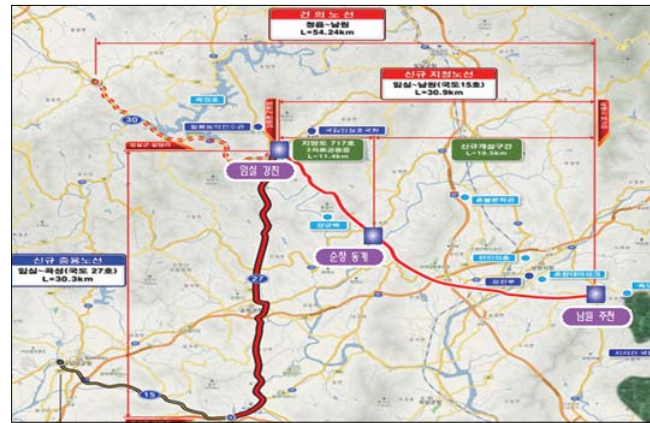
증지역 조성(64억원), 풍력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66.8억원),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32억원),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 구축(10억원),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52억원) 등을 지원 요청했다. 이어 지역 현안 관련 건의사업 논의에서는 전북도 주력산업 고도화, 농생명산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전기차 스키이트보드 개발 및 공동활용 사업(7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파크 조성(17억원), K-FILM 제작 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10억원),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400억원),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100억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14억원) 등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격의 없이 토론함으로써 지역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된 전북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해 정부 정책과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는 사업들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역점' 동부내륙권도로, 국도로 승격

국토부 정책심의위서

새만금 남북도로도 확정

국토교통부는 12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북도에서 국도 승격을 추진한 동부내륙권 도로 30.9km와 새만금 남북도로 27.1km를 국도 15호선과 국도 4호선으로 승격하는 국도노선 등급 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칠보면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이어지는 동부내륙권 도로(54.24km)는 관광활성화와 동부산악권과 서해안권 연계를 위해 2010년 정부투자 지속 적으로 국도개량 및 신설을 위해 노력한 사업이며, 임실군 강진면에서 순창군 동계면까지 지방도 717호(11.4km)와 순창군 동계면에서 남원시 주천면까지 미지정 구간(19.5km) 등 총 30.9km가 급회 국도로 승격됐다. 이번 동부내륙권 도로 전 구간의 국도 지정으로 국도건설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은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사업이며, 전북도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새만금-변산(부안)-내장산-강진산(순창)-지리산(남원)을 연결해 광역관



전북도 동부내륙권 도로(국도 15호).

(사진=전북도청 제공)

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동부산악권 지역과 새만금 등 서해안권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돼 새만금 개발효과가 내륙으로 전파되는 등 지역개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해 1단계 2022년말, 2단계 2023년 7월말 준공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중이며, 새만금 동서도로는 작년말 국도 12호선으로 앞서 지정된 바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동서도로 개통, 지난달 30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예타대상사업 선정, 새만

금~전주 고속도로 2024년말 개통 예정에 이어 이번 동부내륙권 도로 및 새만금 남북도로 국도 승격으로 새만금 내·외부 접근성 개선은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며, 새만금 개발효과가 동부내륙권도로를 통해 동부내륙권까지 전파돼 지역개발의 시너지효과와 관광활성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국도승격에 만족하지 않고 국도건설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국도건설 계획 반영에 대해 지역장차관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352억 추가 편성

전주시, 추경예산안 시의회 제출... 소상공 특별보증 등 반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봉착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35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일자리 및 생활안정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2조371억원에

대비해 1.73%가 증액된 금액으로,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전주시 살림살이는 2조723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분야의 경우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 운영과 소상공인 특별보증 사업에 57억원이 반영됐다. 일자리 및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49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46억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12억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보조사업 3억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파견, 보건복지 전담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에 22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는 예방접종센터 시설 구축에 5억원이,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에 4억원이, 여름·겨울철 재난 대응 등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85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부터 20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자금을 신속히 투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우리에겐 독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땅, 독도(獨島) 피와 눈물로 지켜온 값진 역사입니다. 독도가 외롭지 않게 손을 잡아주세요.

전북교육청은 참여와 체험 중심의 바른 역사교육을 지원합니다.

#역사탐구동아리 #동학농민혁명유적지현장체험학습 #역사교과서보조교재개발 #교원역사전문성신장연수 #중등역사교육동아리

울릉도에서 본 독도 일출 / 권오철 작